



## 산업보건협회가 나가야 할 길

회 장 조규상

지난 2월 26일 정기총회에서 본인은 다시 협회 회장으로선출되었습니다.

본래 덕이 부족하고 재능도 없으며, 더욱이 최근에 와서는 나이탓으로 건강도 부실해져 이제는 물러날 때라고 생각하였는데 늙은 타성으로 굳이 사양하지 못하고 어려운 중책을 다시 맡고 말았습니다.

이제 저로서는 마지막인 임기동안 혼신의 힘을 다하여 후진들에게 훌륭한 유산을 인계하여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차제에 저는 다시금 우리 협회가 나가야 할 길을 천명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 협회는 정관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며 증진시켜 나가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체입니다.

우리 협회는 동업자의 권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組合성격의 단체가 아니라 특수사업, 예컨대 癩협회, 결핵협회, 가족계획협회와 같은 특수 목적을 위하여 창립된 민간 전문기구입니다. 많은 대학들이 협회운영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연유입니다.

우리 협회는 전국을 내다보며, 모든 근로자를 위하여 힘을 모아 일하는 기구이므로 정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도 다릅니다. 우리 협회는 과거 정부의 별다른 도움도 없이 힘이 미치는데로 사업을 확장하여 지부를 설치하고, 각 지부는 서로 도와 오늘의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협회가 나가야 할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 협회는 보건의 혜택으로부터 소



외된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며 증진하는 일에 우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사업장 근로자, 부녀근로자, 연소근로자들의 건강보호는 우리의 제일 목표입니다. 모든이에게 일차의료보건을 주는 일은 오늘날 세계보건기구의 목표이며 복지국가 건설을 향한 우리나라의 기본정책이기도 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산업보건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모인 전문기구입니다. 그러므로 기술에 있어 지도적 능력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우리 협회는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힘을 합하여 산업보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회원기관들의 인력양성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 산업보건은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돕는 산업보건사업은 여러 전

문분야 사람들의 협동으로서만이 이룩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국제노동기구 (ILO)는 1985년 산업보건기관 권고 제171호를 공포한 바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산업보건에 관련된 모든 학회와 전문가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일하여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근로자의 고귀한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근로자가 우리의 생활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산업보건을 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올바른 윤리관과 사명관을 가지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문명시대를 맞이하여 이제까지의 타성과 형식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각기 책임감을 가지고 참으로 근로자들의 보건을 위하여 힘을 모아 일해 나가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